

## ■ 2024년 문학창작주체 지원심의 총평

- 사업명 : 2024년 문학창작주체
- 회의일시 및 장소
  - 1차) 2023.11.23(목) 11:00 / 예술가의집 세미나1실
  - 2차) 2023.12.1(목) 16:00 / 예술가의집 영상회의실
- 심의위원명 : 김태용, 서윤후, 안미란, 엄원태, 표명희

### [1차 심의]

문학 창작주체 공모 사업은 기존 단년간 프로젝트 사업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고, 창작 토대를 보다 긴 호흡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편된 사업이다. 예술가와 예술단체의 역량증대를 위해 안정적으로 다년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창작 현장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는 데 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번 1차 심의에서는 총 24건을 검토하였다. 제출된 지원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최종 선정 건수의 2배수 내외로 선정하였다.

문예지 등 매체 발간 지원 성격의 공모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창작주체로 사업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그에 걸맞은 새로운 기획 공모도 함께 살펴볼 수 있었다. 기존 공공분야 사업을 수행한 경력을 토대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었던 단체의 공모가 두드러졌다. 일회성에 지나지 않고, 다년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과 기획을 고루 갖추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변하는 문화 예술의 향유 방식에 발맞추고 있는지, 그 잠재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사업 주체의 거점 지역과 더불어 장르별, 단체나 개인 등 균등한 안배를 고려하며 심사를 진행하였다. 제출된 대부분의 사업 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데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다. 예산에 따라 선정할 수 있는 폭이 제한된 관계로, 취지가 좋은 사업임에도 사업 계획의 구체성, 지속가능성, 기대 성과 등의 기준에 의해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곳들도 있음을 밝힌다. 아울러 개인창작집 발간 등 타 공모에서 수행할 수 있고, 개편된 사업 취지에 벗어나 있는 공모 건들은 심의에 많은 고민이 필요하였다.

심의위원의 엄정한 검토와 토론을 바탕으로 하여 2차 인터뷰 심의 대상자로 총 16건을 선정하였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문학 생태계에 긍정적으로 일조하고 있는 사업 주체를 만날 수 있어 기쁜 현장이었다. 개편된 문학 창작주체 공모 사업이, 다년간 운영할 수 있는 사업 주체의 기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 [2차 심의]

이번 2024년도 문학 창작주체 2차 심의는, 1차에서 인터뷰 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16건의 사업 주체와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심의 대상자분들께 인터뷰 심의 기준을 안내한 후 심의를 시작하였다. 사업 주체가 공모한 사업 소개를 청취한 뒤, 심의위원의 질의로 공모한 사업의 본질적 의미와 내용을 교환하는 시간이었다. 1차에서 살펴본 사업 계획과 구체적인 수립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귀한 자리였다.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총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2차 심의 인터뷰를 통해, 사업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알기 어려웠던 사업 구조나 방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지원금을 바탕으로 사업 수행의 충분한 역량을 갖추었는지, 향후 3년간 목표가 세부적이고 실천 가능한 범위인지, 지속할 수 있는 현실적 운용 능력과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 창작 현장에서 새로운 파급력과 기대효과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기준을 두고 세밀하게 살펴보았다.

문예지 발간 유형 사업의 경우, 간행물 발행을 유지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문학 매체로서 창작자와 독자 등의 생태계를 고루 살피며 고민하는 사업들을 깊이 고려하였다. 문화 예술 시장의 급변하는 형태에 대응하며 온/오프라인에서 고루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하였다. 심의위원의 채점 결과를 합산하여 총 10건의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긴 토의를 거쳐 예비 개인·단체를 추가로 선정하는데 합의할 수 있었다.

사업 공모 시 제출한 지원금 범위를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경우,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이 고루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선정된 사업의 다양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심의위원 모두 공감하였다.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업 수행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신청 지원금을 하향 조정하여 선정하게 되었다. 아쉽게 선정되지 못하였지만 각자 영역에서 능동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목소리를 출력하고 있는 창작주체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선정된 창작주체는 앞으로 다년간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위촉되어가는 창작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주기를 기대한다.

심의위원 일동